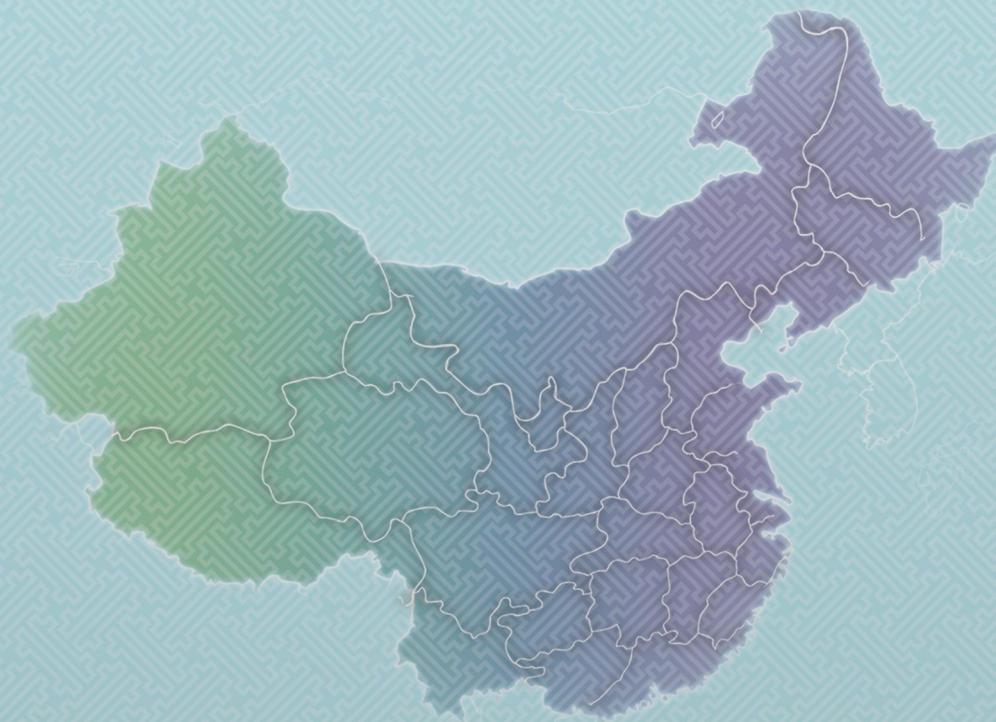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지정배경과 의의

노수연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이상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shlee2@kiep.go.kr, Tel: 3460-1287)



차 례 ● ● ●

1. 지정배경
2. 주요내용
3. 의의

주요 내용

- 중국은 2013년 7월 상하이 시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함.
 - 시범구는 푸둥신구에 위치한 기존의 종합보세구로서, 상하이 전체 면적의 1/226에 상당하는 규모임.
 - 상하이 시정부는 향후 3년 내에 시범구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시범구 조성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상하이 시범구는 본질적으로는 ‘서비스업 개방이 확대된 종합보세구’의 성격이 강하며, 현 단계에서 중국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기존의 종합보세구와 비교할 때 무역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획기적인 개혁·개방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만 언급되어 온 보세구의 자율성 보장을 확인하는 수준임.
 - 시범구 내 기업의 투자조건을 완화하고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계획임.
 - 중국 새 지도부의 금융개혁 시험대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핵심으로 한 개혁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됨.
- 중국정부는 시범구 조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상하이 입지를 굳히려는 의지가 강함. 또한 시범구의 대상면적이 향후 시 전체로 확대될 경우 그 파급효과도 클 것임.
- 상하이 시범구가 홍콩이나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선부른 기대나 지나친 우려를 지양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3~5년 내에 발생할 중국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함.

1. 지정배경

■ 중국 국무원이 7월 3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¹⁾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무부가 8월 22일 정식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비준을 통고함으로써, 중국 최초로 상하이(上海)에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시범구)가 조성될 계획임.

- 중국에서 자유무역지구 조성에 관한 논의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음.
- 특히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하이, 선전(深圳), 톈진(天津), 충칭(重慶), 청두(成都) 등지에서 보세구를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제안을 상정함.
- 이 중 상하이 시가 2011년 중국 최초로 푸둥신구(浦東新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2013년 초부터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김.
-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2013년 3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를 시찰하는 등 중국정부에서도 상하이 시에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2013년 7월 3일 국무원이 상하이 시에 자유무역시범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통과시킴.

표 1.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지정 과정

일시	주요 내용
1988	일부 항구도시에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보세구로 변경하여 설립
200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청쓰웨이(成思危) 부위원장이 2015년까지 2~3개의 세계적인 자유무역지역을 건설하고 〈자유무역지역법(自由貿易區法)〉을 제정할 것을 주장
2005	상하이, 선전, 톈진, 충칭, 청두 등지에서 보세구를 자유무역단지로 변경하려는 제안 상정
2008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이 상하이, 선전, 톈진 등지 시찰
2009	중국생산력촉진중심협회에서 〈푸둥 자유무역지역 건설에 관한 구상(關於中國在浦東建立自由貿易區設想)〉을 발표
2011	상하이가 중국 최초로 자유무역단지 조성 의향을 천명하고, 푸둥신구의 종합보세구를 향후 3년 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2013	〈상하이 시 국제무역중심 건설 추진 조례〉 ²⁾ 에서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자유무역단지의 건설을 언급하고, 상하이 시정부가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자유무역단지 설립을 신청(1월)
	양송(楊雄) 상하이 시장은 양회(兩會)에서 2013년도 계획으로 푸둥지역에 자유무역단지를 시범 건설할 것임을 발표(2월)
	리커창(李克強) 총리 상하이 시찰(3월)
	국무원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방안 통과(7월)

자료: 『第一財經日報』(2013. 1. 28), 「上海有望首個試點自由貿易園區」; 『經濟觀察報』(2011. 12. 3), 「自由貿易園區 上海搶占先機」.

1) 원문은 <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이며, 영문명은 “Pilot Free Trade Zone”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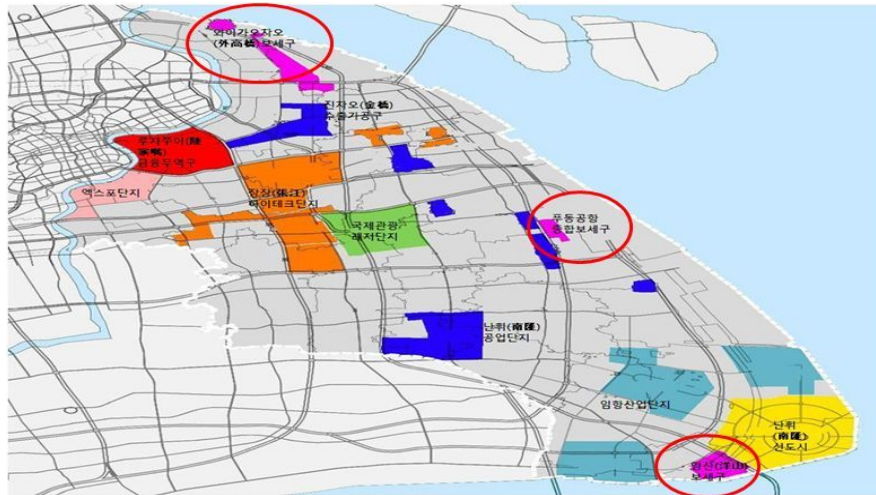
2) 원문은 <上海市推進國際貿易中心建設條例>임.

■ 이번에 시범구로 지정된 지역은 푸둥신구에 위치한 기존의 종합보세구로서, 총면적은 28.78km²에 달함.

- 구체적으로는 △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와 물류단지(物流園區) △ 푸둥공항종합보세구 △ 양산(洋山)보세항구가 이에 해당함(그림 1, 표 2 참고).

- 이들 단지의 총면적은 전체 상하이 면적의 1/226에 상당하며, 시 전체가 자유무역시범구인 것은 아님.
- 상하이 시정부는 2009년 11월, 이들 보세구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음.

그림 1.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분포



자료: 浦東新區人民政府(2011), 「浦東新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표 2.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구성

명칭	운영연도	면적(km ²)	기능	특징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1990	10	자유무역, 수출가공, 물류창고, 보세상품 전시무역	중국 최초, 최대의 보세구
와이가오차오 물류단지	2004	1.03	물류창고, 국제 배송, 국제 재수출·환적	중국 최초의 항구 연동 물류단지
푸둥공항종합보세구	2010	3.59	보세, 보세물류, 수출가공	항공운송 위주
양산보세항구	2005	14.16	보세 가공, 보세 물류창고, 국제 배송, 국제 재수출·환적	해운 위주, 중국 최초의 보세항구

자료: KOTRA(2013. 7. 15), 상하이 자유무역구, 어떻게 활용될까? ; Baidu(<http://baike.baidu.com>) ; 상하이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 <http://www.ysftpa.gov.cn/WebViewPublic/homepage.aspx>; 와이가오차오 물류파크(<http://www.wblz.com.cn/>) (검색일: 2013. 8. 2)

■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중국 세관이 특수 감독관리하는 110개의 보세단지 중 최대 규모임.

-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는 보세단지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海關特殊監管區)이라 통칭함.

- 구체적으로는 보세구(保稅區), 수출가공구(出口加工區), 보세물류단지(保稅物流園區), 변경(邊境) 국제공업단지(跨境工業區), 보세항구(保稅港區), 보세물류센터, 보세창고, 종합보세구(綜合保稅區) 등이 있음. 이 중 종합보세구가 개방도와 자율성이 가장 높은 단지임.

- 2012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10개가 운영 중임.
- 2012년 상하이 종합보세구의 무역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중국 1위를 차지함³⁾ 또한 전체 세관특수 감독관리구역의 상품 매출액과 세 수입에서 상하이 종합보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50% 이상임⁴⁾
- 2012년 상하이 종합보세구에 등록된 기업 본부는 200개이며, 국제무역결제센터도 20개에 달함.
- 특히 중국에서 가장 먼저 보세구로 지정된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의 경우, 연간 세 수입이 전국 보세구의 50% 이상을 차지함. 또한 이곳에 입주한 기업 수도 6,000여 개에 달함. 2012년 이 보세구의 매출액은 1조 위안을 돌파했고, 수출입 총액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섰음.⁵⁾

2. 주요내용

- 종합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 금융, 무역, 항운·해운 등 5대 영역의 개방정책과 △ 관리, 세수, 법규 등 5개 분야의 혁신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무역] 기존의 종합보세구와 비교할 때 무역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획기적인 개혁·개방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만 언급되어 온 보세구의 자율성 보장을 확인하는 수준임.
- 종합보세구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중 개방수준과 우대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로, 보세가공, 보세물류,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기능을 수행함(표 3 참고).
- 시범구의 무역기능 역시 종합보세구와 큰 차이는 없음.

표 3. 종합보세구의 주요 기능

기능	주요 내용
보세가공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보세가공 후 수출(또는 국내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해 단지로 들여와 세급환급을 받은 후 가공수출할 수 있음.
보세물류	단지 내·외부 수출입업체에 원자재구매와 제품판매 과정에서 보세성격의 창고, 배송, 부가가공, 국제중계, 수입 후 재수출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화물무역	단지 내에서 무역회사 등록을 허용하고, 모든 입주기업이 수출입경영권을 가지며, 전 세계 또는 지역 범위에서 구매, 판매,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서비스무역	단지 내에서 보세가공, 보세물류, 화물무역과 관련된 R&D설계, 제품테스트, A/S, 설비임대 등 서비스무역업무를 할 경우, 국제항운·해운센터, 구매분배센터, 결제센터, 선물(先物)인도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음.

자료: 中國(深圳)加工區協會, 中僑證券(2013. 7. 4), 「從保稅區到自貿區, 走上積極開放道路」, 『中信交運·通行天下』, 第22期 p. 20에서 재인용.

- 3) 『東方早報』(2013. 1. 28), 「上海已正式提交申請試點建立自由貿易園區」.
- 4) 『第一財經日報』(2013. 1. 28), 「上海有望首個試點自由貿易園區」.
- 5) 『深圳商報』(2013. 7. 8), 「自貿試驗區推進改革開放的試驗田」.

■ [투자] 시범구 내 기업의 투자조건을 완화하고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계획임.

- 외국계 은행이 시범구에서 자유롭게 자회사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⁶⁾
 - 현행 규정에서도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으나, 비영업 기관인 사무소(대표처)를 설립하여 운영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법인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1년에 1개의 지점만 설립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시범구에서는 사무소 설립 단계 없이 곧장 외국계 은행 설립을 허용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있어서도 장려료, 허용료, 우선개방 서비스업 중점영역 등에 있어서 계약 장정(章程) 심의비준제도를 폐지해 22건의 행정심의비준을 철폐하고 접수관리만을 실행함.⁷⁾
 - 금융, 물류, 비즈니스, 문화,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자격요건이나 지분을 제한, 경영범위 제한 등 진입제한을 철폐할 것임. 또한 선박운수, 정보조사, 공연중개, 오락장소, 교육 등 업종 진출에서 국내외 기업간 차별을 철폐할 계획임.
- 한편 시범구를 통해 진행하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심의비준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⁸⁾
 - 현행 제도에서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 기업을 설립할 때 상무부 및 기타 관계 부처의 비준이 필요하고, △ 해외투자액 3천만 달러 이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나 △ 중국측의 투자 송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비(非)자원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이 필요함.
- 또한 시범구 입주 기업에 대해 15% 법인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음.⁹⁾
 - 현재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중국 기타 지역도 중서부지역의 일부 외국인투자유치 권장산업목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5%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물류, 관광업 등의 분야에서도 개방이 확대될 계획임.¹⁰⁾
 - 외국의 상품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 최초로 시범구 내에서 상품(화물) 보관창고를 소유 및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임.
 - 외국 여행사가 중국인의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를 중국 여행사와 조인트 벤처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음. 단 타이완으로의 여행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

6) 『한국경제』(2013. 7. 10), 「상하이에 외국은행 설립 자유화」.

7) 中國投資諮詢網(2013. 7. 25), 「上海自由貿易區未來如何發展分析」.

8) 『時代週報』(2013. 7. 25), 「上海自貿區：制度“昇級”定成敗」.

9) 中信證券(2013. 7), 「從保稅區到自貿區，走上積極開放道路」, 『中信交運通行天下』, 第22期, p. 7.

10) 『South China Morning Post』(2013. 7. 11), 「Shanghai plans to lure foreign investors to free-trade zone」.

■ [금융] 중국 새 지도부의 금융개혁 시험대로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핵심으로 한 개혁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됨.

- 위안화 자본계정의 개방과 자유 태환을 시행하고, 위안화 오프쇼어(offshore)센터를 설립할 계획임.¹¹⁾
- 금리의 시장화, 환율의 자율화, 금융업의 대외개방 등 금융분야의 개방과 위안화의 오프쇼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¹²⁾
- 그러나 오프쇼어 금융업무는 시범구 내 외국계 은행에게도 위안화업무 시행자격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관리부처에서는 신중한 입장임. 중국계와 외국계 은행 간의 동등한 경쟁은 오히려 중국계 은행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정된 중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¹³⁾

3. 의의

■ 현재까지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할 때 상하이 시범구는 본질적으로는 ‘서비스업 개방이 확대된 종합보세구’의 성격이 강하며, 현 단계에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상하이 시범구 구성에 관한 종합방안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하이 시정부의 시행세칙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분석은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상하이 시범구는 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단지가 무역을 위주로 하는 것과 차별성을 띠.
- 또한 기존의 중국 보세구가 화물 무역에 대한 세금감면, 토지우대, 수출입 관세우대 등의 우대정책을 위주로 했다면, 상하이 시범구는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에 더 치중함.
- 기존의 종합보세구와 비교할 때 무역 분야의 개방도는 큰 차이가 없고, 투자 분야의 개방도는 다소 높을 전망이다.
- 종합보세구 관계자 역시 상하이 시범구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수 우대정책 시행보다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힘.¹⁴⁾
- 이번에 시범구로 지정된 구역은 상하이 시 전체 면적의 1/226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제도개혁과 우대조치가 이곳에만 국한해 시행될 경우, 중국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음.

11) 新浪財經(2013. 7. 4), 「上海自貿區獲批 申請試點人民幣資本項目開放」.

12) 『中國經營報』(2013. 9. 14), 「突擊最後“一公里”上海自貿區9月底挂牌」.

13) 中國投資諮詢網(2013. 7. 25), 「上海自由貿易區未來如何發展分析」.

14) 상하이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전화인터뷰(2013. 9. 2).

■ 그러나 중국정부는 시범구 조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상하이 입지를 굳히려는 의지가 강함. 또한 시범구의 대상면적이 향후 시 전체로 확대될 경우 그 파급효과도 클 것임.

- 시범구 구성과 관련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중국정부는 상하이 시범구 조성을 통해 국내 현안 해결을 피하기보다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도시로서의 역할을 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공격적인 개혁 의지에서 나타남.
 - 2012년 지정된 3개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의 개혁¹⁵⁾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금리의 시장화에 대해서도 상하이에서는 시도할 계획으로 알려진 것으로 볼 때, 국제적인 금융센터로 상하이를 육성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또한 시범구 조성 발표 일주일 후에 개최된 ‘마중 전략 및 경제대화(7. 10~11)’에서도 상하이 시범구에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을 확대할 것임을 언급할 정도로 중국이 시범구에서 개혁 개방을 적극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대외에 표명하고 있음.
- 만약 중국정부가 시범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후 대상지역을 상하이 시 전체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상하이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자유무역항 도시(free port city)¹⁶⁾로 조성할 경우에는 상하이 시의 도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상하이 시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조성된 것은 상하이 시가 금융, 무역, 물류 등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 있으며, 이를 통해 인근의 장삼각(長三角) 및 중국 전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시범구가 시 전체로 확대되면 상하이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인근의 장삼각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국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할 가능성도 높음.
 - 또한 홍콩 면적은 1,104km², 싱가포르 면적은 697km²인데 반해, 상하이의 면적은 6,341km²에 달하기 때문에 시 전체가 자유무역항 도시로 조성된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임.
- 특히 시범구 지정을 계기로 향후 상하이 시의 ‘4대 허브’ 건설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금융·물류센터 건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상하이 시는 2020년까지 4대 허브(四個中心)를 구축할 계획임. ‘4대 허브’는 상하이 시에서 내건 슬로건으로, △ 국제경제허브 △ 국제금융허브 △ 국제물류허브 △ 국제무역허브를 의미함.
 - 국무원은 2009년 4월 「상하이 시의 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 발전 및 국제금융허브와 국제물류허브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포함으로써 금융, 물류 분야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15) 3대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에 관해서는 노수연, 김홍원(2013), 「중국 금융개혁 시범추진 현황과 평가: 저장, 광둥, 푸젠성」, 중국성(省)별동향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16) 화물의 출입, 가공, 제조 등을 자유로이 하는 것은 물론 그 지역 내에 일반 시민이 거주, 생활하는 것도 허용하는 지역을 의미함.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1월 '12·5규획기간 상하이 시의 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함. 이 계획에서 2015년까지 상하이 시를 위안화 관련 상품의 혁신, 거래, 가격결정, 결제를 망라한 국제교역센터로 육성할 계획임을 강조함.
- 그러나 금융허브 건설은 홍콩, 싱가포르와의 경쟁 때문에 진전이 더디고, 물류허브 건설은 동부 연해지역과의 경쟁이 치열함. 이로 인해 금융, 물류허브 건설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해 왔음.
- 이번 시범구 조성을 계기로 금융, 물류를 위시한 상하이 시의 서비스업 발전이 촉진되고, 금융과 물류허브 건설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상하이 시범구가 지역경제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경우 새로운 대외개방모델로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톈진, 샤먼 등 중국 각지에서 자유무역시범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¹⁷⁾
-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상하이 시 경제발전에 가시적인 기여를 한다면, 1980년대 경제특구(1.0)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신구(新區)(2.0)를 잇는 3세대 대외개방모델로서 자유무역시범구(3.0)¹⁸⁾가 각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에서 추진 중인 자유무역시범구는 무역투자 및 기타 분야의 개혁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시범구 본래의 취지는 무역이 기본이므로 향후 시범구를 추가지정할 경우 무역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세계 10대 항만 혹은 중국 10대 항만을 보유한 도시 중에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표 4 참고).

표 4. 2012년 중국의 10대 항구

(단위: 백만 TEU)

순위	항구	화물물동량		순위	항구	화물물동량	
		2012	2011			2012	2011
1(1)	상하이	32,58	31,74	6(8)	칭다오(青島)	14,5	13,02
2(3)	홍콩	23,1	24,38	7(10)	톈진	12,29	11,59
3(4)	선전	22,94	22,57	8(17)	다롄(大連)	8	6,4
4(6)	닝보(寧波) -저우산(舟山)	16,83	14,72	9(19)	샤먼(廈門)	7,19	6,47
5(7)	광저우(廣州)	14,74	14,26	10(26)	롄윈강(連雲港)	4,97	4,85

주: 괄호 안 순위는 세계 순위임.

자료: <http://www.worldshipping.org/about-the-industry/global-trade/top-50-world-container-ports>(검색일: 2013. 8. 2).

- 그러나 당분간은 상하이 시범구의 추진상황을 관망하면서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17) 中國投資諮詢網(2013. 7. 25), 「上海自由貿易區未來如何發展分析」.

18) 『羊城晚報』(2013. 8. 21), 「自貿區或啓動區域開放3.0版」.

■ 시범구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시범구 구성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시범구는 이르면 9월 말~10월경에 정식으로 구성에 착수하고¹⁹⁾ 시행세칙은 연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²⁰⁾ 상하이 시는 향후 3년 이내에 시범구를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시범구 구성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탄력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 상하이 시의 시범구 지정은 리커창 총리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통과되었다는 후문과 함께 향후 금융분야에서 파격적인 개혁개방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²¹⁾
 -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 금융업 규제부서에서 △ 자본의 해외도피를 가속화하고 △ 금리 자유화에 차질을 빚으며 △ 금융관련 서비스를 개방할 경우 인허가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범구 내 금융개혁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방하고 있음.²²⁾ 따라서 시범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관리부처의 탄력적인 대응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세수 우대정책 또한 중요한 부분이나, 이에 관해 재정부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²³⁾
 - 상하이 시정부가 상정한 5대 정책조치 중에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수(稅收)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범구에서 세수우대정책을 포함한 세제개혁을 단행할 계획임.
 - 그러나 재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정책보다는 제도상의 개혁 시도를 권유하고 있음.
- 시범구의 통합관리문제도 미해결 상태임.
 - 현재 상하이 시는 와이가오차오, 양산항, 푸둥공항을 통합해 종합보세구로 관리하고 있으나, 내부 제도가 아직 통합되지 않은 채 각자 통관수속을 하고 있음.²⁴⁾ 따라서 종합보세구가 시범구로 전환되어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상하이 시범구가 홍콩이나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선부른 기대나 지나친 우려를 지양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3~5년 내에 발생할 중국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함.

19) 『中國經營報』(2013. 9. 14), 「突擊最後“一公里”上海自貿區9月底挂牌」. 현지에서는 9월 29일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현판을 정식으로 내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테마주인 와이가오차오, 상강그룹(上港集團), 상하이공항(上海機場) 등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음.

20) 상하이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전화인터뷰(2013. 9. 2).

21) 『South China Morning Post』(2013. 7. 11), 「Shanghai plans to lure foreign investors to free-trade zone」.

22) 『서울경제』(2013. 7. 29),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뼈격」.

23) 『21世紀經濟報道』(2013. 7. 11), 「上海自貿區瞄準亞太一流 稅收政策策或存分歧」.

24) 東方網(2013. 1. 24), 「上海“正加速推動”自由貿易園區戰略」.

- 이번 상하이 시범구 지정은 '상하이의 홍콩화(化)' 또는 '미니(mini)홍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여겨져 홍콩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음. 그러나 상하이 시의 금융개혁이 홍콩 금융계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²⁵⁾
- 그간 홍콩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위안화의 역외 자유거래가 상하이 시범구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홍콩의 역외금융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역외 위안화 예금 총액인 1조 위안 중 7,000억 위안이 홍콩에 예금되어 있는 등 홍콩은 이미 위안화 역외 센터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시범구로 인한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임.
- 중국정부는 상하이 시범구를 중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를 염두에 둔 시험대로 활용할 것임을 밝힘.
- 이에 따라 시범구 조성방안은 TPP,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무역조건을 근거로 제정해, WTO보다 근로기준, 지식재산권, 환경기준, 서비스업 기준 등에서 더 엄격할 것임.
- 우리 입장에서는 시범구 조성이 중국의 TPP 가입과 직결될 것인가 여부보다는 상하이 시범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준이 향후 중국 투자환경의 표준(standard)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범구 방안을 철저히 연구할 필요성이 큼.
- 또한 투자, 무역에서 상하이 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따라서 상하이 시범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의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상하이 시와 항만물류분야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부산시 등의 현황을 검토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KIEP**

25) 『South China Morning Post』(2013. 7. 10), 「Shanghai's plans won't affect Hong Kong, HSBC says」; 『South China Morning Post』(2013. 7. 8), 「Shanghai's free-trade zone puts Hong Kong's future in the spotlight」.